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 순례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2000 홍해작전 6월 6일(화) 새벽 5시 개전

##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그날까지!"

2000 홍해작전이 6월 6일(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홍해작전 새벽기도회는 25일(목)까지 20일 간 새벽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진행된다.

이번 홍해작전의 주제는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표어는 "나의 사랑 서울 교회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2:10)로서 산상보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민족, 교회, 가정, 개인의 회개와 신앙부흥, 태신자전도 그리고 새 예배당 건축 등의 일곱가지 공동기도제목을 놓고 합심기도를 드리게 된다 <관련기사 4면>.

또한 ① 하나님의 전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②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③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등을 행동강령으로 삼고 천국시민의 삶을 훈련하게 된다. 홍해작전 첫 날인 6일(화)과 마지막 날인 25일(주일)은 전 교인 총진군의 날이며 승전감사

예배는 25일(주일) 찬양예배 시 드리게 된다.

또한 이 기간 중 6일(화)에는 단국대학교에서 한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12일(월)과 19일(월)에는 교회주변청소, 10일(토)

과 17일(토)에는 교회 주변 노방전도, 15일(목)과 23일(목)은 새 예배당 건축 현장 방문 및 정리 등 행사를 통해 천국시민의 삶을 실천하게 된다.

### 한가족 한마음 축제

그동안 기다려온 한가족한마음 축제가 6일(화) 새벽에 시작되는 홍해작전에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단국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날 축제는 오전에 음악당에서 개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경기는 체육관으로 옮겨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전 교인이 청백으로 나뉘어 대회가 진행된다. 다양한 종목들이 한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으며 많은 성도들이 기증한 푸짐한 시상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참가하시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돗자리, 도시락, 타월, 모자이며 개회 예배 내용과 성경 말씀은 이날 배포되는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경·찬송을 지참할 필요는 없다.

한가족 한마음 축제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가족임을 확인하고 주어진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마음과 물질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4면에 관련기사>.

## 안수집사·권사 등 일꾼 50명 피택

안수집사 10명과 권사 40명이 지난 주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새로 선출됐다.

이날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10명의 안수집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진>

오유식 김중근 송인권 김현영 김규태 장양일  
탁경준 김금준 이학주 양인수



오유식



김중근



송인권



김현영



김규태



장양일



탁경준



김금준



이학주



양인수

이들 10명의 피택 안수집사는 제직회의 추천을 받은 40명의 후보자 중 투표자의 2/3이상 의 동의를 얻어 선출됐다.

피택안수집사들은 앞으로 6개월 간 당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거쳐 오는 11월 교회설립 9주년 기념일에 집사안수를 받게 된다. 단 교육에 1/5이상 결석하거나 최종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탈락된다.

또 권사는 당회 추천을 받은 40명 전원이 피택됐다. 새로 권사로 뽑힌 40명도 일기간의 교육을 거쳐 권사로 취임하게 된다. 이번에 선출된 권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원정 강애자 고정숙 공진문 박숙 권길자 김경옥 김남순 김명옥 김복순 김숙행 김영희 김인숙2 김현자 김현정 김혜경 박영옥 박우옥 백정순 송두심 안분선 안정옥 이금남 이성애 이승희 이영희1 이영희2 이은희 임귀순 임춘자 장정화 정중순 정희순 주경자 최소희 최영란 최정옥 최현인 최혜순 황선희

제자의 도 ⑤

#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고린도후서 8장 1-5절, 9장 6-15절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남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중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지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이 곧 적게 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흠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음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종욱 목사

구약 유대인들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 1년에 3 차례씩 하나님 앞에 올라가 제물을 바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출 34:20). 우리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1. 잘못된 현금관

얼납되지 않는 현금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명예욕과 이기심에 근거한 현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 그 일부를 바쳤습니다. 이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이에게 보이려고 사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명예와 칭찬을 위해 위선의 현금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자금 확보를 위한 현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흑교회 건축 현금을 위해 부흥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흥회는 영적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나서 현금을 작정하게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 현금과 신앙을 동일시 하는 현금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넷째, 기복사상에 근거한 현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 드리는 현금은 동기가 불순한 현금입니다.

다섯째, 의무감으로 드리는 현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직분 때문에 희생이 없이 드리는 현금은 바람직한 현금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잘못된 현금 개발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원 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잘못된 현금 제도입니다. 물론 그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친 것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또 아픔이 팔죽을 만들어 바쳐 장자권을 얻었듯 별미 현금을 바치라는 경우나 특별 감사현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현금 제도입니다.

일곱째, 잘못 집행된 현금관이 있습니다. 현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사용해야 합니다.

### 2. 현금의 기초

현금의 기초는 십일조입니다. 어떤 것이 십일조입니까?

첫째, 감사 십일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벨기세벱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십일조입니다.

둘째, 자비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는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위해서도 십일조를 썼습니다(신14:28,29 ; 26:12).

셋째, 종교적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는 성전 관리를 위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18:21, 26).

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십일조를 바치라고 합니다(신14:23).

십일조는 구약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눅 18:12, 마23:23, 눅11:42).

십일조는 감사와 공홀과 하나님 경외의 뜻으로 드리는 자기 헌신의 표시입니다(말3:10).

### 3.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우리는 어떤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합니까?

첫째, 모든 것은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고후9:7). 이 작정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준비없는 현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말 1:7)

둘째, 자기 소득에서 얼마를 바칠 것인가 하는 기준은 “힘대로 하라”(고후 8:3)입니다. 신자의 기본 신앙의 표현이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를 힘대로 못한 사람은 도적질한 것입니다(말3:8). 또 십일조와 헌물은 구별이 됩니다. 감사 헌물과 예배 헌물은 다른 것입니다.

셋째,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후 8:3)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 더 일하고 힘에 지나는 일을 많이 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넷째, 현금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고후 9:7). 인색함 즉 근심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금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고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앞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풍성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쁨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삼상 15:22).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현금이 받으실 만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우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고후 9:13). 현금은 자기가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는 자기 이름을 내기보다 교회를 통해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현금은 놀라운 축복이 되고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현금은 은혜받은 사람이 합니다. 주는 것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고후 9:6). 하나님을 심어 백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이며 축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가족부들 수료하면서

## 이렇게 좋은 공부를

배정자(1교구)

서울교회에 첫 발을 디디면 목사님과 면담을 가진 후 새가족부 선생님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혜영 전도사님의 지도하에 12과에 걸쳐 교육이 진행됩니다. 정든 새가족부 과정을 저도 마치게 됐습니다.

유치부 전부터 예수를 믿은 저는 이른바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30살에 집사 직분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이 교회 혹은 교회로 이사 다닐 때마다 교회를 옮겨다니며 주일 날마다 성경책을 들고 이곳 저곳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것이 어언 30년이나 흘렀습니다.

강남으로 이사 와서는 이제 60을 바라 보며 내가 주님을 신앙으로 생각하며 보낼 수 있는 교회는 어딜까 하며 생각하던 중 서울교회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 새벽기도부터 다니자!" 하고 열심히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식당에서 한 집사님을 만나 얘기를 하던 중 등록하라는 권고를 받고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전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주일 낮예배에 참석했던 저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얻었

습니다. 바로 2월 달에 등록하고 새가족부에 들어와 보니 이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주일이 어떻게나 기다려지던지...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마음 속에 꽉 차는지...

새가족부에 온 첫 날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목사님과 사진 촬영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새가족부가 있고 이렇게 은혜로운 목사님 설교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는 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늘 전화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우리 교회로 가보자고 전도합니다.

처음 믿고 나오시는 분과도 함께 목회자 세미나 봉사도 하고 식당 김치도 담그고 설겅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고 공부하며 선생님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떡과 다과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새가족부는 수료했지만 앞으로 사랑과 믿음과 봉사로 예수님을 믿고 서울교회를 사랑하며 받은 사랑을 봉사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홍해 앞에서

## 잃은 양이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최일춘(권사, 12교구)

몇 년 전 부부 모임에서 유럽 4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바둑판 같은 전원 경관과 대영박물관의 앗수르 유적을 시작으로 프랑스의 비옥한 국토에서, 로마의 잘 보존된 유적들과 폼페이와 피렐라의 돌로 포장된 도로와 화려했을 문명에서, 노래로 기억하는 쏘렌토에서 부러워하기도 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최악의 도시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홍해작전 대행진을 이제 맞게 됐습니다. 과거 역사의 흔적에 남겨졌었던 홍해의 흔적이 아직도 우리 안과 주변에 놓여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인 우리는 신앙의 길에 가로놓인 홍해를 이제 건너야만 합니다. 피해 돌아갈 곳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히 새 성전시대를 앞두고 각자의 믿음을 모아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믿음의 열정이 교회적으로 모아져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그

의 영광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겠지요.

이제 매일 새벽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재발견하면서 무장하고자 합니다. 내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서 새로운 은혜와 사명을 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온 성도와 교회가 갱신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의 재발견과 영적회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세우고, 개인과 가정, 교회의 건축, 민족복음화, 국가와 세계를 향한 서울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심기도의 대열에도 함께 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의 불씨가 되리라 결심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하던 세상이 얼마나 다시 돌아와 새 예배당에선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바라며 바랍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주님의 권능으로 갈라지게 하옵소서"

홍해 작전에 붙여

## 내가 건널 홍해는

정병무(장로, 홍해작전 참모장)

올해 예정된 2000 홍해 작전이 눈앞에 개전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먼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홍해작전을 통해 내가 건너야 할 홍해가 무엇일까 발견해야 한다.

게으름의 홍해, 불충의 홍해, 교만의 홍해, 방관의 홍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패역한 자로서의 홍해, 건강상의 홍해, 물질의 홍해... 또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기업의 문제, 국가 사회의 문제, 인류 평화와 공존의 문제... 문제로 산적한 홍해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우리는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진군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 앞에 가로 놓인 홍해가 무엇인지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시온 산성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우리는 담대히 도전해야 할 사명자들이다.

모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을 갖고 무서운 홍해의 파도를 두려워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말씀과 기도의 운동인 홍해작전에 동참하여 승리를 향해 한발 한발 발걸음을 옮기자.

이제 코 앞으로 다가온 홍해 작전이다.

이번 홍해 작전을 통해 우리 교우 모두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또 한번의 기회로 삼자. 날마다 새벽을 가르며 갈급한 심령을 허락 받아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단 앞에 모이자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는 주님의 순종을 배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건너야만 할 저마다의 홍해. 그 바다 앞에 선 우리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 모두다 홍해를 건너 승전가를 높이 불려야 한다. 더이상 애굽 땅의 유혹에 빠져 슬피 우는 자 되지 않을 줄 믿는다.

올 홍해 작전에서도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그리하여 뭉든 제단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승전가 높이 부르는 천국 잔치 되길 기도드린다.

# 한가족 한마음 축제

## 유니폼을 입습니다

한가족 한마음을 이루기 위해 온 교우가 유니폼을 입습니다.

오늘 I·II·III부 예배 후 교회 앞마당에서 청팀(1, 2, 5, 6, 7, 8교구)와 백팀(3, 4, 9, 10, 11, 12교구)에게 각각 청백색 고급 티셔츠를 지급합니다. 해당 교구를 찾아 자신에게 맞는 크기의 유니폼을 받아가지고 유·초·중·고등부 학생은 각 교회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받으신 유니폼은 행사 당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가족 한마음 축제 4대 특별 이벤트

- ▲4행시 짓기: "나의 사랑" 또는 "서울교회"를 머릿글자로 하는 4행시를 지어 당일에 제출하면 심사 후 시상한다.
- ▲백일장·그리기 대회: 교회학교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글과 그림의 주제는 "나의 사랑 서울교회"이다. 당일에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 ▲성경퀴즈대회: 범위는 사도행전. OX문제와 객관식, 주관식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며 최종 1명에게는 노트북 컴퓨터가

주어진다.

▲경품추첨: 가스오븐레인지, 양복, 상품권, 도자기 등 성도들이 기증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나누게 된다.



## 한가족 한마음 축제 장소 교통편

- ▲버스: 1, 11, 17, 28, 78-2, 81, 83-1, 211, 222 (이상 일반버스) 12, 45-2, 773, 917, 1005-1(이상 좌석버스)
- ▲지하철: 국철 한남역(도보로 15분), 2호선 강남역(하차 후 버스로 20-30분), 3호선 신사역·약수역(하차 후 버스로 10-20분)
- ▲승용차: 한남대교에서 북쪽으로 한남동 사거리 지나 전방 150m 오른쪽.

## 한가족 한마음 축제를 후원해 주신 분

(5월 25일 - 6월 2일 현재)

- ▲김삼철(10만원) ▲왕경래(10만원) ▲정병무(양말 10상자) ▲박두호(아외용 음향셋트, 색종이 48상자) ▲전기섭(20만원) ▲제1권사회(50만원) ▲제2권사회(20만원) ▲에스더(10만원) ▲사라전도회(30만원) ▲김갑길(카스테라 500개) ▲이병권(10만원 상품권 5장) ▲이관규(10만원) ▲김규태(30만원) ▲송인권(10만원) ▲오유식(10만원) ▲양인수(10만원) ▲박정선(10만원) ▲곽동희(50만원) ▲최용걸(10만원) ▲김중

- 근(10만원) ▲최양진(10만원) ▲이강인(50만원) ▲최정자(20만원) ▲임상현(100만원) ▲이동만(신사복 2벌) ▲조철기(도자기 5세트 10상자) ▲박태규(햇빛가리개 30개, 발지압기 5개) ▲홍일성(아이스크림) ▲탁경준(20만원) ▲이성근(5만원 상품권 20장) ▲황정욱(화장비누 100개) ▲정무균(10만원) ▲정동호(14만원) ▲윤준구 (생수20통)

## 동정

- \*이경민 성도(1교구 원복순 권사 아들) 은 삼성동 공항터미널에 커피숍 'Cafete Ryale'을 확장개업했다 ☎ 551 - 0881
- \* 이번 주 식사는 심재를 권사(안평·김경아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 고등부는 5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헌장방문을 한다.

## 2000 흥해작전 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의 갱신과 회복을 위하여
2. 정전하고 영광스런 예배당건축의 사명완수를 위해
3. 서울교회의 부흥을 위해
4.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5. 한국교회갱신연구원과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6. 태신자운동과 테마전도를 위해
7.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2000년 태신자 명단

전도자	태신자
70인 전도대 이대호	김기복 김한림 김해정 안지수 박은주

## 이종은 목사 방음실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70인전도대, 선교회·전도회가 나선다!

각 선교회와 전도회는 최근 전도의 선봉에 도에 나선다. 주력부대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서 활약하고 있는 70인 전도대의 활동에 동 한편 70인 전도대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참가하기로 하고 주력 부대를 구성하여 매주 전 3시 40호실에서 갖는다.

구분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6월	70인전도대	빌립·도르가	안드레·루디아	베드로·뵈뵈	—
7월	바울·마리아	엘리아·에스더	모세·한나	아브라함·사라	여름방학
9월	빌립·도르가	가족전도	안드레·루디아	베드로·뵈뵈	—
10월	바울·마리아	엘리아·에스더	모세·한나	아브라함·사라	—
11월	빌립·도르가	안드레·루디아	베드로·뵈뵈	바울·마리아	—
12월	엘리아·에스더	모세·한나	아브라함·사라	빌립·도르가	안드레·루디아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과 한마음 한가족 축제를 위해
2. 새로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
3. 복녘땅에도 신앙서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외약도

